

“무주반딧불축제, 참여형으로 기획”

황인홍 무주군수·박찬주 축제 제전위원장
“환경·사람 공존 축제… 가을의 추억 선사”
축제 준비 상황 소개… 내달 6~14일 개최

가을의 문턱, 무주군이 반짝이는 빛과 자연의 향기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오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무주 일원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9면·16면>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의 매력과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앞서, 지난 22일 무주 주재기자실에서 반딧불 축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I’m BANDI(나는 반딧불)>라는 슬로건 아래 방문객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축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1997년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시작된 무주반딧불축제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환경·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대표축제, 대한민국 명예관광축제, 전라북도 대표축제, 아시아 환경축제까지 반딧불이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의미를 담았다.

축제의 현장은 등나무운동장, 지남공

원, 남대천, 전통공예문화촌, 반디랜드 등 무주 전역을 무대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공식 개·폐회식부터 체험·판매 프로그램, 환경 탐사, 문화예술 공연, 주간 경관과 야간 조명까지, 보는 즐거움과 체험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특히 남대천에는 깨끗한 물과 조명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이 조성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친환경 ESG 축제’라는 점이다. 태양광을 활용한 야간 조명, 기후 위기 메시지를 담은 설치 미술, 재활용 소재 전시·체험 공간, 친환경 종이 소재의 자와 테이블 등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1박 2일 생태 체험, 반딧불 신비 탐사, 남대천 생생 플러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9월 11일 오후 7시에는 TV조선 인기 프로그램인 ‘트롯 올스타전’을 유치하여 국내 정상급 미스<미스터 트롯> 스타들의 노래 대결이 펼쳐진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장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9월 6~14일 열리는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의 매력과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무주를 등나무운동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남궁진, 안성훈 나상도 등 국내 대표 트롯가수들이 다수 참여해 관객들에게 트롯의 열기에 흠뻑 빠져들게 할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무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반딧불이가 만들어 내는 빛과 생명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찬주 제전위원장은 “야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실내 공간을 늘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축제는 28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젊고 역동적인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작은 반딧불이의 반짝임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박찬주 제전위원장은 도민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해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국힘 장동혁 대표 선출

“尹 부부 단절과 무관한 야합”

더민주전북혁신회의 “내란 세력 청산 외면한 결정” 비판
“12·3 사태 옹호 입장 분명히 해”… 심판 통한 대응 촉구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 공동대표 황진·박지원·김용만·강충상·여석경)는 26일 국민의힘이 장동혁 신임 대표를 선출한 것과 관련, 강력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혁신회의는 이번 대표 선출을 “윤석열·김건희 단절과는 무관한 야합”으로 규정하며, 내란 세력의 청산과 심판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비상계엄’ 시도는 국민 주권을 부정한 위헌적·불법적 행위였으며, 헌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혁신회의는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단순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국민주권과 헌법 질서를 위협한 폭거로 평가했다.

이어 혁신회의는 장동혁 신임 대표의 발언과 행보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발언하며,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 대표가 전한길 등 대표적 극우 인사와 보조를 맞춰 전당 대회에서 승리한 점을 들어, 극우

성향과 내란 옹호 성향이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사실상 주류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내란 옹호’로 결국된 정당이라는 점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런 정당은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국민은 내란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이러한 비정상적 결집과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가 당선 직후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 혁신회의는 그의 비이성적이고 극단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끝으로 “국민의힘 내란 정당에 직면한 현실은 국민의 힘으로 정당을 해산할 것이라는 경고”라며, 국민과 헌법적 심판을 통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 대한 민주당 계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내란 행위와 극우 인사들의 부상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제2회 추경안 등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6일 2025년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 1회 추경예산보다 1,732억원(10.32%)이 증액된 1조8,507억 원이며 내달 1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윤신애·김영일·한경봉·서동완·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경태·김영란·서은식·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트럼프에게 만년필 선물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사용한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민주 신정훈·기본소득 용혜인 의원, 법안 공동 발의
읍·면 주민 월 30만원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30만원, 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는 25만명 감소했으며, 전국 읍·

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인구 유출을 막지 못했 다며, 주민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해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강화하도록 했다.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항 활성화 방안 모색 설명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산항 활성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산항이 물동량 처리, 국제 항로 운영, 지역경제 견인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심 역할을 짚고,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군산항과 새로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의 기능 중



용혜인 의원



신정훈 의원

두 의원은 오는 9월 12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식과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복을 방지하고, 각각 특화된 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군산항은 곡물·사료·잡화 등 중량물 특화 항만으로 △새만금신항은 컨테이너·자동차·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항만으로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 되는 민주당”

전북 출신 민주 청년당원 윤승현 후보, 평당원 최고위원 도전

전북 출신 청년당원 윤승현 씨가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씨는 과거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정치 활동 경험을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痛痛히 확인했고, 민주당의 근본정신인 ‘억강부약(抑強扶弱)’이아말로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길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시 평당원의 당, 국민속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또 “내란 사태 이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 없었다”며 “정의와 민주주의의 길, 평당원과 청년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도전은 정청래 대표가 천명한 ‘평당원 주권, 1인 1표 원칙’을 현실로 구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평범한 당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닿는 구조, 그 새로운 민주당을 전북에서 가장 먼저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며 “호남 속에서 늘 전남·광주에 가려져온 전북의 목소리, 이제 제가 중앙 정치에痛痛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전북 청년의 끈조와 용기로,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청년이 꿈꾸는 세상을 열어가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전했다.

한편, 윤 후보는 평당원 제안 1호 안건 최고위 상정, 시·도당 평당원 소통위원회 발족, 공천 관련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비율 확대, 온라인 평당원·청년 참여 플랫폼 베타 오픈, 청년 담비 감면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희성 기자

좋은 일자리 창출·지속관리 체계 구축해야

전용태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이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어 염영선 의원, 권요안 의원, 김슬지 의원, 오은미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김공수 군산대 교수, 강남호 원광대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운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서재영 일자리 민생경제과장, 양선화 기업유치과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토론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원하는 수요 중심의 정책적 분석과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빈틈없는 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지리의 질적 분석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제고를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